

붓다로 살자

曹溪宗宗正真際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이 종단의 '붓다로 살자' 운동의 원안 진행을 위해 친필 휘호를 내렸다.

중정 진제 스님, '붓다로 살자' 친필 내러

17일 용인 법륜사 만일결사 입제식서 전달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이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천 운동인 '붓다로 살자'의 원만한 진행을 기원하는 휘호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7월 10일 자성과세신결사 추진본부(본부장 도법)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격려의 마음을 담아 휘호를 썼고, 결사추진본부는 8월 17일 새로운 만일결사 입제법회를 봉행한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에 이를 전달했다. 법륜사는 지난 4월 14일 법화경 독송 3년 정진기도를 회향하며 '붓다로 살자' 결

사정진을 서원한 바 있다. 한편, 결사추진본부는 '붓다로 살자'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결사도량 사찰과 단체에게 진제 스님의 휘호를 전달해 중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용인 법륜사에 이어 8월 25일에는 '붓다로 살자' 결사 도량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조계사(주지 월명)도 초하루법회를 통해 전달식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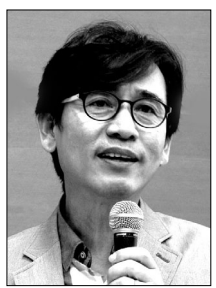
“사회 혁신하지 못하면 위기 직면할 것”

조계종 교육원, 유시민 前 장관 초청 워크숍

교육연구자 40여 명 참석

“타인에 대한 연민 있어야

사회 혁신, 이뤄질 수 있어”



유 前 장관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민들 각자가 훌륭해져야 하고 훌륭한 시민들이 국정에 최대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면서 “결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와 에너지 고갈로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한 유 前 장관은 민주적 복지국가로 진화하기 위해 △시민의 기본권 보장 △보편적·선별적 복지제도의 확대와 확충 △비정규직 등 부당한 차별 철폐 △재벌 등 특수 계급에 대한 법치 확립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제도 전면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와 에너지 위기가 요구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이뤄야 한다”면서 “각자의 욕망과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이뤄야만 사회 혁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교육원장 현웅 스님을 비롯해 승가 교육 전문연구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스님들, 청소년 인성교육 전문가로 ‘발돋움’

한마음과학원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 조계종 승려연수로 인정

오는 9월 20일부터 5주간 실시
출제가 교육전문가 강사진 참여
‘마음수행’ 바탕 인성교육법 강의
9월 13일까지 모집... 정원 40명

로그래밍으로도 인증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2010년에는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라는 이름으로 초등용 교사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 중등용 지도서와 워크북을 출판하여 다양한 인성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님들 대상으로 하는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데에서 기획됐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인성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교육훈련을 제공받고 인성교육지도자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5주간 진행되는 지도자 과정은 바람직한 소통 방식부터 마음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가는 교수법을 강의한다. 수업방식은 강의와 토론, 놀이와 체험, 실습 등 청소년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교재도 기존 활용 교재가 아닌 스님들에게

맞춤 교재가 따로 제작·배포된다. 강사진도 눈길을 끈다. 연수 과정의 강사로 는 오랫동안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강사로 활동해 온 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과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민선 도계초등학교 교사, 박종래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CEO,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강사,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실장은 “‘한나무’ 인성교육의 핵심은 마음수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교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실장은 “‘한나무’ 인성교육의 핵심은 마음수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교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의 핵심은 세계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인식하고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스님들이 인성교육 부재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법사 혜찬 스님은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스님들부터 배워야 한다”며 “학교폭력과 왕따 등 각종 폭력이 시달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두위친 아이들 마음을 밝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은 오는 9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은 조계종 스님으로 정원은 40명까지다. 모든 과정을 이수할 때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구교육 점수 30점을 부여받는다.

한편, 1996년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으로 시작된 한마음과학원은 18년간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는 한마음의 원리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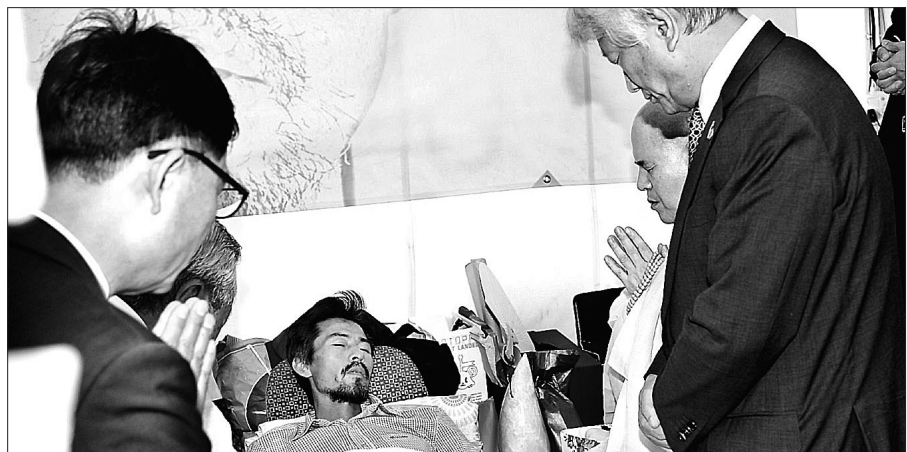
현재 한마음공생실천과정,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마음공부과정, 한마음아빠지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마음수행에 근간한 사회교육,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문의 031)470-3200 / 319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아픔은 국민 모두의 아픔”

자승 스님 등 종교지도자들
21일 세월호 단식장 위로 방문
진상규명 가능한 특별법 촉구
“정부는 국민에 최선 다해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종교지도자들이 8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단식장을 찾아 39일째 단식투쟁 중인 김영오 씨의 건강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세월호의 아픔은 유가족들의 것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아픔입니다. 이 시대 주어진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서정기 성공관 관장 등 종교지도자들은 8월 21일 세월호 단식장을 방문했다.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단식장에서 단식투쟁 중인故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를 위로했다. 당시 김영오 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39일째 진행 중에 있었다.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세월호의 아픔은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비롯해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이 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승 스님은 “유민 아버지가 바라는 바와 소원성취 위해서 기도하고 기원하겠다”며 “단식이 40일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힘들지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어 종교지도자들은 단식장 부근에서 제정 촉구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각 종교, 시민단체를 격려했다. 단식장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장포럼 등이 함께 단식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계 NGO연대 단체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불시넷은 성명에서 “세월호의 피해자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온 국민이 피해자”라며 “정치권이 몰염치와 무능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전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글=노덕현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용주사 신임 주지 성월 스님 선출

산중총회서... 성관 스님 사퇴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신임 주지에 성월 스님(상진)이 선출됐다.

용주사는 8월 20일 신임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구성원 203명 가운데 193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 1차 투표에서 성월 스님은 112표, 성관 스님은 79표를 받아 성월 스님이 우세했다. 하지만 산중총회 구성원의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산중총회법에 따라 당선은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성관 스님은 1차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사퇴의사를 밝혔고, 결국 2차 투표없이 성월 스님의 주지 당선이 확정됐다.

주지 당선자 성월 스님은 1977년과 1979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한 이래 2009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과 강화정수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임학서와 '육임재정비법' 등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효사활인천역집 I·II·III' '효사비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 (교교미필자·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친정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공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방법으로 일생 운영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찻는가? 배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애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신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운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마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옳을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따)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입니다.
- ⑧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아내가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대학교 1층 강당